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3, pp. 297-306, 2019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9.10.3.297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융합 관련성

이경혜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nce between Ego-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Kyung Hye Le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uwon Science Colleg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융합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G 지역에 소재하는 일 대학교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18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SPSS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수행능력은 자아탄력성 (r=.446, p<.000), 전공만족도(r=.439, p<.000)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는 자아탄력성(r=.310, p<.000)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이었으며, 설명력은 29.1%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그리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융합적 교육프로그램으로의 개선과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융합,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호,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between ego‐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is study used data from 183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t a college located in G city of Korea. Clinical competen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go-resilience (r = .446, p <.000), major satisfaction (r = .439, p <.000). Th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y were ego - resilience and major satisfaction, and explanatory power was 29.1%.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and diversify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o improve the major satisfaction, ego - 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onvergence, ego-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y, nursing,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보건의료 환경은 환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높은 수준의 간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호대학들은 간호이론지식을 바탕으로 실습실 실습과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프로그램 학습성과 기반 간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간호학생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성과 기반 간

Corresponding Author : Kyung Hye Lee (ilchooe@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1, 2018 Revised March 08, 2019
Accepted March 20,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호 이론 및 실습 관련 학습경험은 졸업 후 간호사 업무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1].

임상수행능력을 Barrett 와 Myrick[2]는 간호실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통해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3].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현장에서 임상실습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환자 권리 존중이 강조되는 의료 환경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은 간호수행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불확실하고 복잡한 실제 간호상황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1]. 2016년 간호사들의 이직사유로 업무부적응이 15.0%로 2위를 차지하였다[4].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은 신규간호사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공적인 적응은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촉진하는 중요요소이다[5].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단순히 수행능력만의 문제가 아닌 간호사로서 적응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전문직 간호의 적응과 관련된 개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함으로써 유연하게 반응하며,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이다[3,6].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낯선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긍정적인 적응가능성이 높았다[5,7]. Klohnen[8]은 자아탄력성이 단순히 역경을 빨리 극복하고, 적절한 자아통제를 통해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는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과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감, 역경을 견디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는 낙관적인 태도,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주변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들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개인은 탄력적이 된다고 하였다[9,10]. 인간의 행동에 있어 적극적인 적응은 임상실습 상황에서 간호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성향이라고 생각된다.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교육 시 실습하는 병원과 병동이 달라지므로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마주하게 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적응가능성이 높고 임상실습 수행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에 비해 대학진학과 동시에 최종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 없이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전공교과 학습과 임상실습 과정동안 자신의 미래 간호 실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직·간접적 경험을 하게 될 때 환자간호에 대한 책임감, 두려움과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적성과 전공이 맞는지 고민하게 된다[11-14]. 현재 소속된 전공학과가 자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전공학과 만족도는 높았고[15,16],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과 수업에의 참여,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들의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였다[17,18]. 또한 간호학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19].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3,5,20,21]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22]가 있었지만,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간호 교육현장에서 전공만족도가 낮은 경우 학업성취도도 낮아지게 되고, 낯설고 긴장된 임상실습에서 자아탄력성이 부조화를 이루면 적극적인 적응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교육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자아탄력성을 증가시켜 긴장된 상황에 둘러싸인 임상실습 현장에서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성공적인 임상실습 경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학교생활과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학생의 자기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이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전문직간호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로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자기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자기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일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최대 예측요인 10로 했을 때 최소 표본수가 172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무응답률을 고려하여 총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성실히 응답한 183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en[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ER)를 유성경과 심혜원[23]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자아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76, 유성경과 심혜원[23]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24]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리노이(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하혜숙[24]이 개발하고 이동재[25]가 수정 보완한 전공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이었다.

2.3.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 본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을 이원희 등[26]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 도구를 최미숙[19]이 수정한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못 한다' 1점에서 '매우 잘 한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6, 최미숙[19]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s α= .97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방법과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첫 장에 연구 목적과 연구 참여의 자율성, 연구 철회 시 불이익이 없는 등의 연구 윤리 부분을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동의서 하단의 동의여부 란에 체크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조사의 강제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학과의 반대표가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된 자료 중 설문 내용에 충실히 응답한 183부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서술통계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에 대해서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 대학생 183명의 연령은 21세에서 25세가 79.2%로 가장 많았고, 3학년 48.6%, 4학년 51.4%로 분포되어 있었다. 성별은 여학생이 96.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종교 없음이 61.2%, 기독교 20.2%, 가톨릭 13.1%, 불교 5.5% 순이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26.2%이었다. 취업을 원하는 영역으로 종합병원 50.3%, 대학병원 37.7%, 공무원 7.7%, 산업간호사와 외국간호사가 1.6%, 보건교사 1.1%이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로 취업에 유리해서가 36.1%, 적성에 맞아서 20.8%, 부모님이 권해서 15.8%, 가치 있는 직업이라 생각되어서 14.8%,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6.6%, 성적에 의해서 3.3% 기타 2.7% 순이었다. Table 1

3.2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최저 17점에서 최고 56점이었으며 총점 평균 38.17±5.80, 4점 기준으로 평균 2.73±0.41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총점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까지 측정되었으며, 총점 평균은 64.01±10.44, 5점 만점에 평균 3.56±0.58이었으며, 전공만족도의 하부영역의 요인은 1~5점을 기준으로 인식만족(4.12±0.64)이 가장 높았고, 일반만족(3.58±0.75), 교과만족(3.03±0.77), 관계만족(2.91±0.86)순 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총점 최저 45점에서 최고 225점 까지 측정되었으며, 총점 평균 147.61±27.59, 5점 기준만점에 3.28±0.61이었고, 임상수행능력 하부영역요인은 교육/협력관계(3.34±0.74), 간호기술(3.30±0.62), 대인관계/의사소통(3.29±0.74), 간호과정(3.24±0.65), 전문직 발전(3.22±0.71)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평균이 높았으며 유의하였고(p=.004), 취업을 원하는 영역(p=.002), 간호학과 지원동기(p=.021)에 있어서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성별, 학년, 종교, 동아리활동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연령(p=.021), 취업을 원하는 영역(p=.026), 간호학과 지원동기(p=.002)에 있어서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5), 취업을 원하는 영역(p=.000), 간호학과 지원동기(p=.034)에 있어서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3.4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임상수행능력은 자아탄력성(r=.446, p<.000), 전공만족도(r=.439, p<.000)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는 자아탄력성(r=.310, p<.000)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변수 간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계수가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가 0.904로

0.80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ilter, VIF)는 1.106으로 다중공선성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 적합도 F 값은 38.3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 측정 변인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29.1%였다. 자아탄력성와 전공만족도는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β =.343, p<.000), 전공만족도(β =.332, p<.000)순으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	≤ 20	24	13.1	22.34±2.45
	21~25	145	79.2	
	≥ 26	14	7.7	
Grade	3rd year	89	48.6	
	4th year	94	51.4	
Gender	Male	6	3.3	
	Female	177	96.7	
Religion	Christian	37	20.2	
	Buddhist	10	5.5	
	Catholic	24	13.1	
	None	112	61.2	
	Other	-		
Circle Activity	Yes	48	26.2	
	No	135	73.8	
Plans for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	69	37.7	
	General Hospital	92	50.3	
	Community Official	14	7.7	
	Occupational	3	1.6	
	School	2	1.1	
	Abroad	3	1.6	
	Others	-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66	36.1	
	Value	27	14.8	
	Aptitude	38	20.8	
	Stability	12	6.6	
	High School Record	6	3.3	
	Recommendation of Parents	29	15.8	
	Others	5	2.7	

Table 2. Degree of Ego-Resilience,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Competency (N=183)

Variables	Range	Min	Max	Mean±SD
Ego-Resilience	14-56	17	56	38.17±5.80
	1-4	1.21	4.00	2.73±0.41
Satisfaction of Major	18-90	18	90	64.01±10.44
	1-5	1.00	5.00	3.56±0.58
General Satisfaction	1-5	1.00	5.00	3.58±0.75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1-5	1.00	5.00	4.12±0.64
Curriculum Satisfaction	1-5	1.00	5.00	3.03±0.77
Relationship	1-5	1.00	5.00	2.91±0.86
Clinical Competency	45-225	45	225	147.61±27.59
	1-5	1.00	5.00	3.28±0.61
Nursing Process	1-5	1.00	5.00	3.24±0.65
Nursing Skill	1-5	1.00	5.00	3.30±0.62
Education/Cooperation	1-5	1.00	5.00	3.34±0.74
Interpersonal Communication	1-5	1.00	5.00	3.29±0.74
professional develop	1-5	1.00	5.00	3.22±0.71

Table 3. Differences in Ego-Resilience,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Competency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Ego-Resilience		Satisfaction of Major		Clinical Competency	
		Mean±SD	F or t(p)	Mean±SD	F or t(p)	Mean±SD	F or t(p)
Gender	Male	3.00±0.23	1.65	3.72±0.74	0.71	3.39±0.26	0.44
	Female	2.72±0.42	(.101)	3.55±0.58	(.477)	3.28±0.62	(.662)
Grade	3rd year	2.68±0.42	-1.60	3.49±0.48	-1.49	2.99±0.48	-6.95
	4th year	2.77±0.40	(.111)	3.62±0.66	(.138)	3.55±0.60	(.000)*
Age	≤20 a	2.66±0.36	0.37	3.45±0.55	3.96	3.04±0.43	2.86
	21~25 b	2.73±0.42	(.689)	3.54±0.59	(.021)*	3.33±0.62	(.060)
	≥26 c	2.76±0.46		3.96±0.39	c>b,a	3.13±0.74	
Religion	Christian	2.83±0.53	0.90	3.62±0.75	0.43	3.36±0.74	0.96
	Buddhist	2.69±0.34	(.440)	3.54±0.47	(.733)	3.53±0.66	(.414)
	Catholic	2.71±0.34		3.63±0.53		3.28±0.59	
	None	2.70±0.39		3.52±0.54		3.23±0.59	
Circle Activity	Yes	2.87±0.41	2.88	3.65±0.58	1.38	3.49±0.58	2.83
	No	2.68±0.40	(.004)*	3.52±0.58	(.174)	3.21±0.61	(.005)*
Plans for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 a	2.81±0.38	3.91	3.67±0.56	2.62	3.43±0.59	6.24
	General Hospital b	2.68±0.39	(.002)*	3.55±0.56	(.026)*	3.30±0.57	(.000)*
	Community Official c	2.43±0.53	d>f,a,e,b>c	3.21±0.65	a>b>e>	2.52±0.66	a>d>b>
	Occupational d	3.36±0.64		3.11±0.11	c>d>f	3.39±0.24	f>e>c
	School e	2.75±0.05		3.44±0.55		2.78±1.07	
	Abroad f	2.93±0.36		3.02±0.81		3.04±0.48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a	2.64±0.34	2.57	3.40±0.53	3.64	3.12±0.53	2.34
	Value b	2.72±0.35	(.021)*	3.76±0.47	(.002)*	3.44±0.63	(.034)*
	Aptitude c	2.87±0.42	e>c,d,f,b,a>g	3.82±0.49	c>b>g>	3.36±0.57	d>b>f>
	Stability d	2.83±0.45		3.51±0.42	d>f>a>e	3.45±0.64	c>e>a>g
	High School Record e	2.87±0.61		3.10±1.24		3.29±0.70	
	Recommendation of Parents f	2.75±0.43		3.49±0.57		3.42±0.60	
	Others g	2.29±0.77		3.54±0.87		2.75±1.25	

* Scheffe test

Table 4. Correlations among Ego-Resilience,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Competency (N=183)

	Ego-Resilience	Satisfaction of Major	Clinical Competency
Ego-Resilience	1	.310(<.000)*	.446(<.000)*
Satisfaction of Major		1	.439(<.000)*
Clinical Competency			1

* p <.0.0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y (N=183)

Variable	B	SE	β	TAA	p	Ad R^2	F	p
Constant	.646	.303		2.130	<.035*	.291	38.349	.000*
Ego-Resilience	.507	.097	.343	5.222	<.000*			
Satisfaction of Major	.352	.069	.332	5.064	<.000*			

Adj R^2=Adjusted R Square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2.73점(100점 환산점수 68.3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2.80점[3,20,27]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낮은 수준으로, 간호대학

생의 유연한 상황대처 능력 향상이나 긍정적 참여[5,7]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고, 적성과 성적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간호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과 같은 교과 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서 학과에 잘 적응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며 대처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병원의 낯설고 긴장된 환경에서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방안으로 입학 시부터 자아탄력성을 증진을 위한 지지프로그램[5]으로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신입생들의 학과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3.56점으로 간호 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오지현[17]의 연구결과 3.43점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김덕진과 이정섭[10]의 연구 3.64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인식만족이 가장 높았고, 관계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구[10,13]결과와 유사하였다. 인식만족이 높은 것은 간호사는 전문직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학생들 자신이 학과를 지원할 때 적성이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원하였기에 간호학과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계만족이 낮은 것은 교수-학생 간 관계에서는 학업에 관한 조언을 듣거나 만남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어려워[10]하므로 관계개선을 위하여 소그룹형태로 정기적인 소통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적성이나 간호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여 지원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17,28]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결과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전공만족도가 높게 측정된 연구[17,28]에 근거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동아리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임상수행능력은 3.28점으로 김경남[20]의 연구에서 3.3점, 박현숙과 한지영[29]의 연구에서 3.39점, 김금이와 이보영[1]의 연구에서 3.42점, 박영숙과 권윤희[3]의 연구에서 3.49점으로 연구결과들과 비교 할 때 낮은 수준이었다.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2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이외선과 구미옥[30]의 연구에서 3.25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의 1/2정도가 임상실습을 한차례 경험한 3학년이 포함되어 대상자의 표집차이로 인한 특성으로 보여 진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교육/협력관계가 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기술 3.30점, 대인관계/의사소통3.29점, 간호과정 3.24점, 전문직 발전 3.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협력관계 영역이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낸 선행 연구[1]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영향과 환자의 인권이 강화되면서 환자에게 설명과 교육을 강화하고,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으로 교육관련 간호중재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직접 간호수행과 관련된 간호기술이나 대인관계 의사소통 등이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은 임상실습 시 수행이 제한적인 간호수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내 시뮬레이션 교육과 핵심기본간호술 자율실습의 강화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박영숙과 권윤희[3]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발전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본 연구결과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은경과 박진아[5], 김경남[21]의 연구에서 간호과정 부분이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권리 보호가 강조되는 병원 환경에서 간호학생들은 정보시스템에 제한적인 접근만이 가능하고, 3학년이 포함되어 있어 간호과정을 대상자에게 실제 적용하는 것과 비판적 사고과정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교과목 간의 간호과정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뮬레이션실습과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의 적극적인 활용과 집담회를 통해 사례중심의 간호과정 적용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31]하는 방안을 강구하다면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수행능력은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던 것은 본 연구의 조사시기가 3학년의 경우 처음 임상실습을 경험하였고 4학년은 6~7차 실습 경험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와 반대로 3학년이 4학년보다 임상수행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20]도 있었다. 이는 학년의 차이, 학생들의 특성과 교과과정 운영의 차이 등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교과 외 활동을 활발히 한 학생이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결과를 나타낸 연구[32]와 유사한 결과로 교과 외 활동 중 동아리 활동은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와 협동을 포함한 대인관계와 책임감 등을 배우는 기회로 이러한 활동이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병원 취업을 원하는 경우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측면에서 간호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간호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전공교과 활동에 보다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 때문에 임상수행능력 또한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3,5,21,28,32],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27,33]와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 간에 상관관계를 보고하여[10,34]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이었으며, 설명력은 29.1% 이었다. 선행연구들에서[3,5,32]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은 학습적응의 어려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므로[32], 임상실습 시 간호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고[5],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자는 다양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수법을 활용하여 수업 시 긍정적인 피드백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소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유연한 상황대처능력 향상이나 긍정적 적응을 가능케 하는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과 외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공만족도는 직접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으로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던 선행연구 결과[1,5,20,21,31]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간에 보고된 정적 상관관계[18]를 통해 간접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결과[10,34]와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 전공만족도를 확인 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 전공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며,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공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내·외 실습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 외에도 인성과 전공 적응을 위한 교과 외 활동으로 소그룹 내에서 선후배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공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간호학과 차원의 전공 적응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과 자신의 생각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이었으며, 설명력은 29.1%이었다.

본 연구는 일 대학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전체 간호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생을 포함하여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간호대학생의 일반 특성과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관련성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선과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K. E. Kim & B. Y. Lee.(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85-896. DOI : 10.5392/JKCA.2014.14.10.885.

[2] Barrett, C., & Myrick, F.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preceptor. *Journal Advanced Nursing*, *27(2)*, 105-108.

[3] Y. S. Park & Y. H. Kwon.(2013).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9(3),* 341-350. DOI : 10.5977/jkasne.2013.19.3.341.

[4] Hospital Nurses Association(2017).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5] E. K. Lee. & J. A. Park.(2013). Ego-resilia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2).* 293-303. DOI : 10.5932/JKPHN.2013.27.2.293.

[6] J. Block & A. M. Kremen.(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7] H. J. Park.(1996). *Perceived stress, coping process and depression to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8] E, C. Klohnen.(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DOI : 10.1037/0022-3514.70.5.1067.

[9] S. A. Kim. & K. H. Min.(2011). Comparison of Three Resilience Scales and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2),* 223-243.

[10] D. J. Kim. & J. S. Lee.(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2),* 244-254. DOI : 10.5977/jkasne.2014.20.2.244.

[11] H. Cho & G. Y. Lee.(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12] E. H. Choi.(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5(1),* 15-21.

[13] I. O. Moon & G. W. Lee(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6(1)*, 83-91. DOI : 10.5977/JKASNE.2010.16.1.083.

[14] J. S. Jung., M. J. Jeong., I. Y. Yoo.(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DOI : 10.5977/jkasne.2014.20.1.27.

[15] H. Y. Jeong & O. L. Park.(2009).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ense of value,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level of beauty care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Beauty and Art*, *10(1),* 35-49.

[16] S. J. Han.(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Adult Nurs* . *25(5),* 559-56. DOI : 10.7475/kjan.2013.25.5.559.

[17] J. H. Oh.(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DOI : 10.5392/JKCA.2014.14.10.873.

[18] C. S. Shim & S. Y. Park.(2018). Effects of a Simulator-Based Delivery Education on the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5)*, 199-207. DOI : 10.21184/jkeia.2018.7.12.5.199

[19] M. S. Choi.(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 K. G. Kim.(2014). Affecting Factors on Competence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2), 55-65.

[21] H. S. Cho.(2005).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 222-231.

[22] H. J. Jang & Y. K. Kwag.(2013).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9),* 4380-4387.
DOI : 10.5762/KAIS.2013.14.9.4380.

[23] S. K. Yoo & H. W. Shim.(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in Korean).

[24] H. S. Ha.(2000). Indicator for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25] D. J. Lee.(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6] W. H. Lee., J. G. Kim., J. S. Yoo., H. K. Hau., K. S. Kim., & S. M. Yim.,(1990). A study on instrument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Bulletin of Yonsei Nursing, 13(7),* 17-29.

[27] S. Y. Yang.(2015).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Ego 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3),* 1699-1710.

[28] M. A. Shin.(2013). Effect of Volunteering, Self-esteem and Job-esteem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1),* 1024-1035.
DOI : 10.5392/JKCA.2013.13.11.1024.

[29] H. S. Park & J. Y. Han.(2013).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4),* 438-448.
DOI : 10.7739/jkafn.2013.20.4.438.

[30] O. S. Lee & M. O. Gu.(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49-2759.
DOI : 10.5762/KAIS.2013.14.6.2749.

[31] M. J. Shin & Y. E. Chun.(2018). Convergence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19-32.
DOI : 10.15207/JKCS.2018.9.2.019.

[32] E. S. Do & Y. S. Seo(2014).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3),* 283-291.
DOI : 10.7739/jkafn.2014.21.3.283.

[33] J. W. Lee., N. Y. Lee & Y. S. Eo.(2018).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311-320.
DOI : 10.5762/KAIS.2018.19.1.311.

[34] S. H. Park & S. H. Han.(2016).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517-526.
DOI : 10.5762/KAIS.2016.17.8.517.

이 경 혜(Kyung-Hye Lee) [정회원]

- 1996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85년 8월 ~ 1996년 10월 : 경희의료원 간호사
- 2007년 3월 ~ 2011년 2월 : 강동구보건소 간호사
- 2011년 8월 ~ 현재 :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 E-Mail : ilchooe@hanmail.net